

# The Question Concerning Technology

기술에 대한 논구

MAAT Lab

안근영

# Contents

1. 저자 소개
2. 핵심용어 정리
3. 요약
4. 기술에 대한 물음
5. 기술의 본질
6. 기술은 닭달이다
7. 역운
8. 닭달의 위험성과 잠재성
9. 예술로써 테크네

## 1. 저자 소개



(Martin Heidegger, 1889~1976)

하이데거는 실존주의 철학자로 불린 독일의 철학자이다. 1923년 마르부르크 대학, 1928년 프라이부르크 대학 교수를 지냈으며, 독일 히틀러 집권 시기 나치를 지지하는 발언을 자주하여, 한나 이렌트와 같은 학문적 동지들과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했다. 그의 철학은 초기 리케르트 가치 철학에 영향을 받기도 했으나, 존재와 시간을 중심으로 하는 전기철학과 1930~35년 사이의 소위 전회 이후의 철학으로 나뉜다. 그는 후설의 현상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 딜타이의 생의 철학 등의 영향 하에 독자적인 철학을 개척하여 현존재의 존재의미를 탐구하는 실존론적 철학을 수립하였다. 그의 전기철학은 방법론적으로 해석학적 현상학이며 그 대상은 현존재, 인간실존에 대한 존재론이다. 현재에서 존재 자체로 핵심적 주체가 옮겨간 후기에는 역사적으로 존재 자체가 인간 현존재에게 어떻게 스스로 현시하는가를 다루고 있다. 플라톤이래 역사는 존재망각으로 점철되었으며, 특히 오늘날과 같은 기술시대는 존재망각이 극단을 이룬 시기라고 하였다.

## 2. 핵심용어 정리

가. 탈은폐 (revealing) : 현실이란 결코 확인된 것, 절대적인 것, 영원히 결정된 것이 아니며, 시대마다 각기 다르게 스스로를 내보이며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나. 비은폐 (the unconcealed) : 의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다. 부품 (Bestand/standing-reserve) : 일상적 의미의 재고보다 그 이상의 본질적인 것으로 기술 산업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하게 서로 얽혀있는 존재자를 닦아세우는 고유한 탈은폐성 내지는 개방성의 방식.

라. 작업대=뒹달=뒹아세움(Ge-stell/Enframing) : 스스로를 탈은폐 시키고 있는 것들을 부품으로 주문요청 하도록 인간을 집약시키고 있는 것.

마. 주문요청 (Be-stell) : 도발적 요청하는 닦아세움을 통해 존재자를 하나의 탈은폐의 성격으로 몰아넣는 것을 말한다.

바. 도발적 요청 (heraus-fordern) : 탈은폐 방식의 하나로 사물들의 존재에 폭력을 사용하는 압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사. 역운 (destining) : 닭달 안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부품으로써 실재를 시작하게 하는 것을 보낸다는 시각에서 sending-that-gathers로 정의한 것을 말한다.

아. 아이티온 : 원인, 다른 어떤 것에 책임을 지님.

자. 포이에시스 : 어떤 것을 그 자리에 없던 상태에서 그 자리에 있음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것을 야기 시키는 모든 것을 말한다.

차. 퓌지스 : 가장 높은 포이에시스.

타. 에피스테메 : 과학, 학문이란 뜻의 그리스어. 하나의 사태에 접근함. 그 사태에 정통함 등의 학문이란 의미.

파. 닙아세우다 (Stellen) :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 취하다.

### 3. 요약 정리

\* 표상(vor stellen) 하지 말고 사유(denken)하라!

기술에 대한 물음의 본질에 접근하라. 즉 기술이란 정의에 대하여 사실과 진리의 차이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선 사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이데거의 '기술에 대한 논구'는 기술에 대한 도구 주의적 해석을 넘어 기술을 존재론적으로 접근하여 기술의 본질의 문제를 철학적 명제로 만들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하이데거는 도구적 기술의 접근에 비판을 가하는 한편 기술이란 단어의 본질을 파고들어 현대 테크놀로지 시대에 유효한 '테크네' 정의에 대한 고찰을 통해 기술의 본질 자체의 물음이 필요함을 제기하면서 이를 사유로써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 4. 기술에 대한 물음 (1~8)

1. 기술에 대한 물음은 깊은 사유를 통해 얻어야 한다.
2. 이러한 물음은 본질에 도달하기 위해서이다.
3. 기술에 대한 본질에 도달할 때 비로소 기술과 자유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
4. 기술의 본질은 기술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
5. 기술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생각하고 이를 장악하려 하지만 기술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려 한다.
6. 기술이 목적을 위한 수단이란 주장과 기술이 인간의 행동이라는 주장은 유사한 것이다.
7. 이처럼 도구적이고 인간학적 규정은 과거나 현재를 떠나서 올바르다. (das Richtige) 하지만 참된 것은 아니다. (das Wahre)
8. 기술의 본질에 도달한 경우에만 참에 이를 수 있다.

## 5. 기술의 본질 (8~31)

1. 도구란 그것을 가지고 어떤 작용을 하여 무언가 얻으려는 것이다.
2. 작용은 원인이다.
3. 그리스에서 원인은 단지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작용만 의미하지 않는다.  
본질을 밝히기 어려운데, 이를 위해서 기원에서부터 고찰한다는 입장.
4.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4원인 (은잔)
  - 가. 질료 (재료나 원료) - 은
  - 나. 형상인 (형태) - 잔
  - 다. 목적인 (목적의 행위) - 제사를 위함
  - 라. 능동인 (결과) - 원인, 은장이
5. 근대에 능동인만 원인으로 여김.
6. 고대의 인과성, 원인이라는 뜻은 작용함이나 성취함이 아닌 책임(빚을 짐)이 있음을 의미.
7. 목적인은 그리스어 텔로스(telos, 목적, 목표로 번역되나 이는 오역)에서 온 것으로 끝나나 완성을 의미.
8. 아리스토텔레스가 의미하는 작용인은 기계적 작용이 아닌 나머지 세 가지 원인을 모으는 것.
9. 고대 그리스에서 에이티온(aition)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어떤 것을 나타나게 함. 현존하게 함이다.
10. 어떤 것을 그 자리에 없던 상태에서 그 자리에 있음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것을 야기 시키는 모든 것이 포이에시스, 밖으로 끌어내어 앞에 내어 놓음이다. (poiesis, Her-vor-bringen)
  - 가. 수공적 작업



나. 예술, 시적, 미술적 작업

다. 자연(퓌지스, physis) - 스스로 생겨남. (최고의 포이에시스)

11. 자연이 자기 스스로부터 생겨나게 하는 것이라면, 기술이나 예술은 다른 것으로부터 생겨나게 하는 것.

12. 존재하지 않는 것을 나타나게 함은 결국 은폐된 것을 비은폐/탈은폐 시키는 것이다.

13. 탈은폐는 그리스어로 진리, 참인 알레테이아이다.

14. 기술은 단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닌 탈은폐의 한 방식이다.

15. 기술은 그리스어로 테크네, techne인데 이는 episteme(인식)의 일종으로, 인식 또한 탈은폐이다.

가. 수공업자에게 중요한 것은 손재간도 있지만 학습을 통한 지식습득도 있다.

나. 수공업자가 하는 작업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을 특정한 방식으로 탈은폐시키는 것이다.

다. 그에 반해 자연은 반드시 되게 될 방식으로 탈은폐한다.

라. 탈은폐의 기술은 만들어 냄이다.

16. 기술의 본질은 진리의 사건인 탈은폐(das Entbergen)이다.

## 6. 기술은 닭달이다 (32~63)

1. 기술의 탈은폐의 방식은 시대마다 변한다.
2. 현대기술의 탈은폐는 포이에시스(poiesis)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는다.
3. 대신 자연에 에너지나 다른 자원을 내 놓으라고 무리하게 요구하는 도발적 요청이다.  
(Her-vor-bringen → Herausfordern)
4. 과거 풍차는 바람에 내어 맞기고 기다렸지, 무리하게 에너지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력발전에서 수압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고 저장, 분배, 송전한다.
5. 인간은 눈앞의 목적에 따라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기대하고자 자연을 촉진(foerdern)하고, 왜곡시킨다.  
(자연의 숨겨진 에너지를 채굴 → 변형 → 저장 → 분배 → 전환 → 사용, 기술은 이 과정을 조종한다)
6. 현대 기술은 도발적 요청이라는 의미에서 닭아세움(stellen)이다.
7. 자연은 이제 자연 그 자체가 아닌 에너지의 원료이자 원천이 되고, 결국 전체 산업구조 부품(Bestand)으로 전락하고 만다. (대상 → 부품)  
(부품 = 인간의 욕구에 부합하는 요소.)  
(예, 라인강(대상) → 도발적 요청 → 전력장치(변조) → 부품)
8. 여기서 사물은 주문(Bestellen)에 의해 위치(stand)를 갖는다.
9. 인간이 자연을 부품화 시키고, 닭달하는 것은 인간 자신이 이미 닭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력자원 또는 임상실험 대상)
10. 인간이 현대기술의 탈은폐를 좌지우지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부품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기

술을 활용을 통해 탈은폐 방식인 주문요청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

11. 인간의 요구가 쌓이면서 산맥과 같은 그룹이 형성된다.
12. 하이데거는 그룹으로 묶인 요구들을 인간 본성의 특징(성격)으로 본다.
13. 인간이 자연과 관계에서 그룹으로 덩어리진 요구를 작업대/뉘달 (Enframing)이라 부름. (Ge-stell = frame)
14. 인간이 자연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 대상이 자연으로 보이지만 근원적으로 인간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것이며, 이것은 스스로 만들어 낸 상(form)을 의미. 이러한 상을 인간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en + frame (en)을 붙임. 또한 Ge-stell의 -는 동사적 의미로 사용된 것.
15. Enframe 단어의 철학적 의미로 플라톤의 eidos 단어의 기원을 소개. eidos는 모든 사물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
16. 현대에 들어와 eidos (에이도스)의 언어적 쓰임새가 물질적 사물을 인간의 오감을 통해 인지할 수 있는 뷰(view)의 의미로 범위가 좁혀짐.
17. 하이데거는 이데아란 용어가 시각적 인지뿐 아니라 인간의 오감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사물의 근원적 특성을 구성하는 것이라 정의.
18. 이데아는 많은 철학적 사유를 요구하지만 하이데거가 만든 현대기술과의 관계에서 뉘달은 그렇지 않다고 비유를 한다.
20. 뉘달에 대한 정의를 다시 소개한다. 뉘달은 인간과 자연(the real)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자연에게 주문의 형식처럼 요구하도록 강요하는 욕구(힘)의 집합을 의미한다.
21. 뉘달은 탈은폐의 과정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는데 이때 기술이 관계한다. 뉘달이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힘을 크게 작용하면서 드러나기 때문.  
(여기서 기술에 대하여 끼치는 힘의 관계에 집중해야 하며, 기술 자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의 현상을 바라보

아서는 안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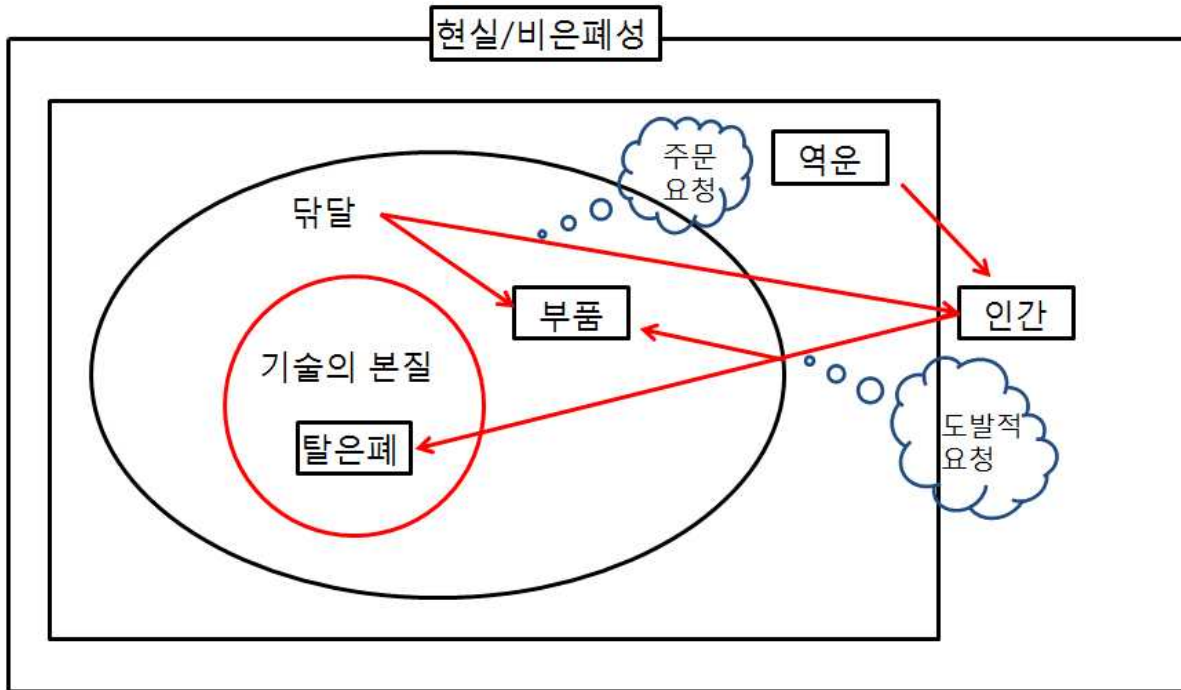
22. assembly(공장의 자동생성라인)란 용어를 사용하여 기술을 상징한다. 예로 공장의 선반, 기구들을 인용.
23. 기술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쓰이는 것은 닙달이라는 힘의 원천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24. 닙달(Ge-stell)에 세우다(stell)이란 단어는 도발적 요청을 하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닌 세움(stellen)이란 명사적 의미도 있다. ‘세움’의 명사적 의미는 포이에시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25. 과거 기술의 본질에 속하는 포이에시스와 닙달의 세움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이 둘은 탈은폐, 알레테이아(진리)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26. 부품으로써 실재를 드러내는 과정을 현대 기술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설명.
27. 기술은 전통적인 관점인 인간의 행위의 일부나 수단으로써 바라보는 것과 다름을 지적.  
그가 바라본 기술은 인지 못했던 실재(the real)들을 찾아 드러내는(reveal) 탐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 본다.
28. 현대 기술이 닙달을 통해 실재를 탈은폐(드러내는)하는 것은 결국 주문을 받아 부품을 얻어내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 7. 역운 (63~72)

1. 닭달 안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부품으로써 실재(드러내어 보이게 함)를 시작하게 하는 것을 ‘보낸다(send)’의 시각에서 ‘sending that gathers’로 정의 한다. 이를 the destining(역운)이라 정의함.  
(운명의 뜻을 사용한 이유는 신이 인간에게 역사의 사건 속으로 보내는 것을 비유한 것)
2. 닭달과 역운과의 관계, 닭달에서 드러내는 것은 숙명과도 같은 특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기존의 기존 시대의 기술에 대한 운명과는 다른 의미를 지녔다.  
(현대 기술의 본질은 닭달 안에 있고 닭달은 탈은폐의 역운에 속하므로 현대 기술의 본질은 역운 안에 일어난다. 운명과 역운은 다르다. 운명은 변할 수 없는 사건으로 피하지 못하고 진행되는 것이라면 역운은 (변형될 수 있게) 변화로 인간을 보내는 것이다.)
3. 역운, 인간이 기술에 직면하여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사용해야 하는 운명을 의미.
4. 닭달이 동작할 수 있는 범위는 역운의 영역 안이다.
5. 기술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을 수도 있다.
6. 기술에 대한 맹목적인 사용이나 적대적인 태도보다는 오픈된 마음으로 서로간의 관계를 바라보고자 할 때 자유로움이 시작된다.
7. 기술의 본질은 닭달 안에 있고, 닭달은 역운 안에 속해 있다.
8. 역운이 인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닭달하게 하는 구조에 대해 인간은 닭달을 위해 항상 자연에 대한 주문을 드러내는 것에만 집중하는 휘둘림을 지적한다.
9. 기술을 통해 주문을 드러내는 것에 휘둘림으로써 다른 가능성이 차단된다. 이렇게 휘둘리는 근본원인은 인간의

필요성(욕구) 충족을 위해 탈은폐(revealing)

10. 다른 가능성이 차단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는 점에서 인간은 위기에 처한다.
11. 역운 안에서 인간이 주문을 드러내는 것에 휘둘리다보면 실재들이 스스로를 보이는 특성을 잘못 해석하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12. 인간이 자연을 바라볼 때 인과관계에 의해 해석하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신도 인과 관계 안에서 하나의 원인과 결과에 불과하다.



## 8. 닭달의 위험성과 잠재성 (73~103)

1. 닭달이 지배하는 곳에 위험이 항상 도사린다.
2. 동시에 구원자의 성장도 잠재되어 있다.
3. 구원의 의미는 본질로 되돌려 주어 그 본질이 비로써 본래적으로 나타나도록 해줌을 뜻함.
4. 위험이 있는 곳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구원의 힘을 잡을 수 없다.
5. 닭달의 전개 속에 구원의 힘이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사유해야 한다.
6.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본질에 대해서 물음을 던져야 한다.
7. 기술의 본질적 닭달은 탈은폐의 한 역운적 방식, 다시말해 도발적 요청의 탈은폐이다.  
(‘가정’ ‘국가’라 할 때의 본질은 어떤 종류의 보편을 뜻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가정 또는 국가가 다스려지고 관리되고 전개되고 쇠퇴해가는 방식을 말하듯이 기술이 본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방식으로 사유해야 한다.)
8. 기술의 본질은 의미가 모호하지만 모든 탈은폐의 역운을 내포한다.
9. 모든 탈은폐의 역운은 제각기 보존함에서부터 일어난다.  
(인간이 단 하나뿐인 탈은폐 방식인 주문요청으로 밀어 넣으려 위협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본질을 포기하게 내버려 두는 닭달 속에(극단의 위험 속에) 인간의 가장 친밀한 파괴될 수 없는 보존자에 귀속성이 나타난다.)
10. 기술의 본질적 존재가 구원자의 대두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기술을 도구로 생각하는 한 우리는 그것을 자유롭게 관계 맺지 못하고 기술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
11. 기술의 본질은 고도의 의미로 모호하다. 이런 모호함이 인간의 참여를 통한 모든 탈은폐, 다시 말해 진리의

신비를 지시하고 있다.

12. 뉘달은 진리의 본질과 연관을 근본적으로 위태롭게 만들지만 보존자 안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진리의 본질의 참된 것에 필요한 자로 존속해 주고 있다.



## 9. 예술로써 테크네 (104~117)

1. 기술의 본질에 가장 가까이 관련된 영역이 예술이다.
2. 기술에 대한 물음은 진리의 본질적 존재가 일어나고 있는 그 형세에 대한 물음이다.
3. 서양 역운의 시작인 그리스 예술은 탈은폐의 최고의 경지이다.
4. 그리스 예술은 신들의 현존을 이끌어냈고, 신적인 역운과 인간의 역운 사이의 상호 대화가 빛나게 해주었다. 이 예술이 테크네라고 일컬어졌으며, 이것만이 유일한 다각적인 탈은폐 였다. 이때 예술은 밖으로 끌어내어 앞에 내어 놓는 포이에시스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박한 테크네로 일컬어졌다.
5. 기술의 본질이 전혀 기술적인 것이 아니기에 기술에 대한 본질적 자각과 기술과의 결정적인 대결은 한편은 기술의 본질과 가깝게 관련되어 있고 다른 편은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영역인 예술에서 이루어진다. (테크네의 어원은 기술을 뜻하지만 한편으로 예술을 뜻한다)
6. 기술의 본질적 존재를 순전히 기술로 보아서는 경험할 수 없다.
7. 예술의 본질적 존재를 순전히 미학만으로 보아서는 보존할 수 없다.
8. 위험이 크게 다가올수록 구원자의 길도 밝게 빛날 것이다. 그러므로 더욱 물음을 제기해야 한다.